오늘의 게시판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식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행사 〈30일〉

▲2006 한국컨벤션 산업전=개막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업계 종사자 등이 2천여명 참석 예정. 컨벤션마트·국제회의 유치설명회·컨벤션 심포지엄(김철원 경희대 교수가 '투어리즘 테크놀로지 구축을 위한 전시컨벤션산업의 가치사슬 체계 창출방안', 영국 브르넬대 박성민 교수가 'TT효과 제고를 위한 전신컨벤션분양의 테크놀로지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취업 설명회 및 유치 컨테스트 등.

▲2006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개막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 70개·해외 50개 등 120개사가 200개 부스를 설치하고 실버주택·가정간호용품 등 실버 장비·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실버 관광 여행 상품 등을 소개하고 홍보. 12월2일까지.

▲경로당과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식=오전 11시 광주 갤러리아웨딩홀.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식=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1천3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 목표액 13억. 2007년 1월31일까지 설치.

▲2006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및 장기자랑=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주시지부 서구지회 발대식=오후 3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제 513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탁윤균 LG인화원 상무가 'LG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인재육성 방향'에 대해 강연.

▲광주 4·19 역사포럼=오후 6시 광주시 히딩크 호텔.

〈12월1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최근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에 대해 강연

▲제 132회 강진 다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임효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고고학상으로 본 한·중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

▲기초질서지키기 봉사단 발대식=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무궁화꽃 소녀 출판기념회=오후 6시 광주시 히딩크호텔. 21세기 국제교류회 공동대표 윤동욱씨의 번역한 책 출판 기념회.

▲제 4회 광주시 서구 어린이 예술제=오후 6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제 4회 무안군 친환경 유기농업대회=오전 11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군 친환경 유기농업협의회 주최로 무안군에서 재배, 생산된 유기농산물 전시.

공연

▲장한나 첼로 콘서트 '첼로 소나타 로맨스'=30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제 5회 하모닉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30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전시

▲숲의 이야기전=30일까지 일곡갤러리. 숲을 캔버스에 담아온 박유자씨의 개인전.

▲기독교 미술협회전=12월6일까지 상계갤러리. 광주기독교 미술인협회전.

▲신동철 개인전=30일까지 북광주우체국 갤러리. 사찰과 남도 풍광을 담은 한국화 작품 전시.

▲스페인, 세기의 거장전=12월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안토니 타피에스 등 스페인 유명작가 작품 40점 전시.

▲수묵회 회원전=29일까지 궁동 상계갤러리. 강형채, 구영주, 김인선, 박안수, 박희석씨 등 수묵회원 작품 전시.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12월1일까지 광주대 예술대 3층 갤러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뉴스퀴즈

40. 최근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이 영화가 감독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촬영상·조명상·시각효과상·음향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1천300만명의 관객을 동원, 한국 영화사상 흥행 기록을 다시 쓴 이 영화는 역대 개봉일 최다 관객(45만3006명) 등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① 괴물 ② 타짜 ③ 비열한 거리 ④ 짝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㊻ 지나친 매너는 버리고 매력을 보여라

'그 사람 참 매너 있어' 누군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스마트한 인상에 늘 남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상냥한 말투에 언제나 짜임새 잇는 행동까지. 사람들은 매너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하지만 연애에서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매너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이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매너라는 것은 인간미가 덜한 '깍듯함'으로 해서 인간적인 정을 느끼기 어려운 '거리감'을 만들기도 한다

매너는 공손함과 깍듯함, 매력은 자신감과 당당함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들에게 '매너' 있는 사람과 '매력' 있는 사람 중 고르라고 한다면 열의 아홉은 '매력' 있는 남자를 연애 대상으로 선택한다. 물론 결혼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매너 있는 남자에게 호감은 갖는 여자들의 심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매력을 가진 남성에게 호감을 갖는 시간은 열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학을 마치고 외국계 시스템 회사에 다니던 김모(31)대리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늘 입가에 머금은 인자한 미소가 일품인 남성이다.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나 친절한 행동이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조모 대리는 진지한 연애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그 동안 몇몇 여자들을 소개 받았지만 다들 2~3번의 만남이 고작이고, 무미건조한 만남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데이트를 보면 늘 약속시간 10분 전 도착, 늘 의자를 빼주고, 차 문도 열어주고, 친절한 말투와 꼭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그런 데이트를 해 왔다고 한다. 미남은 아니지만 늘 청결한 복장에 단정한 헤어 스타일의 젠틀한 이미지이다.

매너 벗어버리고 자기만의 특별함 보여줘라

여자들은 이런 남자와의 연애는 답답하고 숨막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늘 변화가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약간의 긴장을 동반한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은 것이 지배적인 정서다. 매너 좋은 착한 남성들 대부분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 들이는 것은 답답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너가 좋지만 매력이 없는 남자는 여자들에게는 한편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기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매너를 벗어 버려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를 너무 떠받들지 마라.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지금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법도 없으며, 이 여자가 아니라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자들은 매너 있는 착한 남자는 착하고 매너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신은 매력적인 남자를 찾아 떠나고 만다.

매력과 자신감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자신에 대해서 주눅이 들면 절대 여자를 대할 때 저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라. 매너라는 틀에 자신을 감추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특별함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만이 갖게 되는 진정한 매력이다. 그렇다면 연애 기술이든 매너를 지키는 것이든 그 무엇보다도 나은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0일(음 10월 10일 癸亥)

子 36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48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60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72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84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4, 28

丑 37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작다. 49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난다. 61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73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85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 24, 44

寅 38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0년생 재물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2년생 불만과 불평은 본인의 잘못이다. 74년생 서류와 윗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17

卯 39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3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와 장을 살펴보라. 75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43

辰 40년생 고생은 있으나 좋은 날이 된다. 52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64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76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31

巳 41년생 초행길은 불편하니 살펴서 행동하라. 53년생 주변 사람과 신용이 무너지면 절벽으로 추락한다. 65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77년생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이니 상심하지는 마라.
행운의 숫자 : 23, 42

午 42년생 혼자서 노는 격이니 재미가 없다 이웃과 정을 나누라. 54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잡으라. 66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면 떡을 얻으리라. 78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1, 41

未 43년생 주변의 친지나 이성의 협조가 있다. 55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67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경사가 생길 수 있다. 79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 2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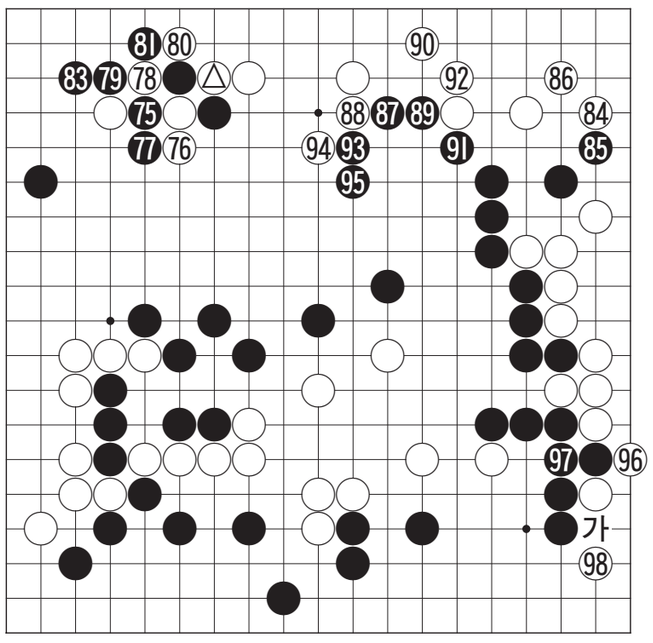
申 44년생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보이니 놓치지는 말아라. 56년생 새로운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마라. 6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80년생 순풍과 역풍이 오락가락하니 조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30

酉 45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57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9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니 수양하듯 지내라. 81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 문제는 조심.
행운의 숫자 : 22, 34

戌 46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7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82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쌓은 공로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 21, 32

亥 47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9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1년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탈이 없으리라. 83년생 일 겨수 일 투쪽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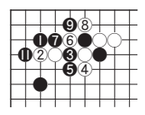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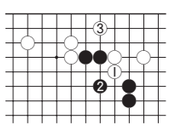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절묘한 끝내기 5보(75~98)

白 이강민 5단 〈PGA생명〉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참고도 1〉



〈참고도 2〉

백 ㉯로 끊어왔을 때의 정석은 '참고도1'의 흑 1로 3. 삼에 뛰어들고 11까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흑이 3. 삼에 뛰어들었을 때 백이 실전의 78에 막는다든지 해서 변신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 5단이 임기응변으로 75로 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흑 83까지 실리를 차지해서 흑이 집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백 84는 큰 곳이며 흑이 89로 헤딩했을 때 90으로 물러선 수는 손해수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올라선 다음 3으로 넘어야 했다.

'끝내기가 진짜 실력이다'는 말도 있듯이 미세한 바둑에서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필요하다.

백 96에 '가'로 막지않은 흑 97이 또 대실수다. 이것을 응징한 백 98이 절묘한 수처럼 보이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이성재, 원익배 본선 3회전 진출

이성재 8단이 지난 28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2회전에서 유창혁 9단을 19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본선 3회전에 올랐다.

이 8단은 본선 3회전에서 최철한 9단과 대결한다. 또 다른 본선 2회전에서는 백홍석 5단이 조혜연 7단에게 14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본선 3회전에 진출했다. 백 5단은 목진석 9단과 본선 4회전 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대국 제한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3회의 속기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87>

How was your vacation in Vancouver?

밴쿠버 휴가는 어땠어?

A:**How was your vacation in Vancouver?** You had such great tan.
B:I had a hell of a good time.
A:That's good. You went fishing there?
B:Of couse, I did. Trolling, you know.

A:**밴쿠버 휴가는 어땠어?** 자네 정말 멋있게 태웠는데.
B:엄청 재미있었지.
A:잘 됐구나. 거기서 낚시도 갔었니?
B:물론이지, 갔었어. 자네도 알지, 트롤링 방식!

How was~? : ~은 어땠어?
tan : 햇볕에 탄 빛깔, 황갈색
go fishing : 낚시하러 가다.
- go mountain-climbing : 등산하러 가다
- go sightseeing : 관광가다
trolling : (긴 줄로 감아올리는)회전 낚시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87>

どんな寝言でしょうね

어떤 잠꼬대 말이죠

A:弟に言わせと、私は寝(ね)ているときに、寝言をよく言うそうです。
B:へえ、**どんな寝言でしょうね**。聞いてみたいですね。
A:寝言(ねごと)ばかりでなく、いびきをかいたり、歯(は)ぎしりもするらしいんです。
B:へえ、人は見かけによらないものですね。

A:남동생에게 물어보니, 나는 잘 때 잠꼬대를 자주 한다고 해요.
B:아니, **어떤 잠꼬대 말이죠**? 들어보고 싶군요.
A:잠꼬대뿐만 아니라 코를 골거나 이를 갈기도 하는 것 같아요.
B:저런!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른 것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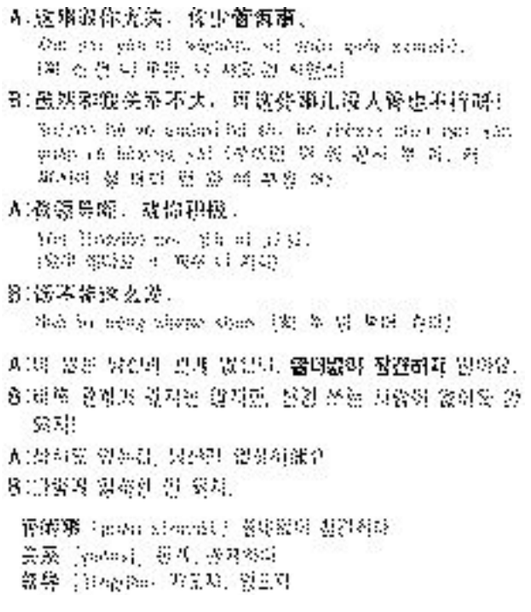
言(い)わせる : 말을 하게 하다
寝言(ねごと) : 잠꼬대
~~てみたい : ~~해보고 싶다
~~ばかりでなく : ~~뿐만 아니고
いびきをかく : 코를 골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505>

管閑事

쓸데없이 참견하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505>

事上磨鍊 (사상마련)

일 사, 위 상, 갈 마, 단련할 련

사상마련(事上磨鍊)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갈고 단련하는 수양이다.

사람이 학문하는 까닭은 도리(道理)를 알고자 함이다. 송대의 주자학은 도(道)를 책에서 찾는 '궁리(窮理)'의 수양법을 강조하였다. 또 한편 노장사상(老莊思想)과 불교(佛敎), 특히 성리학(性理學)을 열었던 주돈이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수양(修養)을 주로 하였다.

그런데 명대의 왕양명은 '사상마련'이라는 수양법을 제시하였다. 사람은 직접 일을 담당하면서 의지(意志)를 단련(鍛鍊)할 때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단지 정좌(靜坐)만 좋아하면, 일에 당하여 마음이 흐트러지고 큰 진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좌를 통하여 얻은 수행마저도 무너지고 만다고 하였다. 즉 정좌를 통한 수양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하면서, 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상마련'의 수양법은 일상생활의 때와 곳에 따라 마땅한 실천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내 마음의 선지향적 심정(善指向的心情 : 良知)에 따른 판단과 처리가 필요하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